

어버이 주일

출애굽기 20:12

5 월 10 일 2020 년

“어머니 마음” 1930 년에 양주동시인 지은 시를 한번 읽어봅니다.

1 절: 나실제 괴로움 다잇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하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없어라.

2 절: 어려선 안고 업고 열려 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앓을사 그릇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 절: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오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오늘 어머니 주일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모두에게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계셔서,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I am because my father is. I am because my mother
is.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이,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창조했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이를 통해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모친께서, 이제 8 월이 되시면 97 세가 되십니다.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아버님 먼저
소천하신 후에, 동부에 단풍 구경도 하실 겸, 커네티컷에 오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어 갈 수 있겠냐?” 하셨습니다. 몇일이 지난
후에, 제가 아침 전화 인사를 드리면서, “그래도 바람 좀 쐬겸, 막내 아들도 볼 겸,

커네티컷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됐어 건사마,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다 거기에”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고 했더니, 아침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데, 커네티컷 막내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어머니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며는, 떠오르는 복음서 이야기 두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 장에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가운데 있으실 때에, (요 19:26)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되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하십니다. (요 19:27) 그리고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이다” 하셨습니다. 그 후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이야기 입니다.

효도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할까 걱정이 되어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효도하는 예수님만을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연결시킴으로, 예수 제자 공동체는,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제자로서, 요한과 마리아는 아들과 어머니 관계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는 마가복음 12 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 중이실 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한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으로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누가 나의 어머니입니까? 혈연 관계로 연결된 분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답입니다. 저의 어머니의 존함은 유자 순자 애자 이시고, 거주 토랜스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의 어머니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어머니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개념을 넓히셨습니다. 혈연 관계로 맺은 사람들 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모친이고 당신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 공동체의 멤버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시고, 아버지 이시고, 형제 자매입니다.

프리실라 그메신키 창립 멤버 중의 한 분이십니다. 2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12 년 전에 파송 받고, 첫 주에 처음으로 심방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 분을 만날 때 마다, 저는 어머니 라고 불렀습니다. 그 분이 장례 예배 시간에 제 성이, Gminski-Cho 라고 알렸습니다.

교회 가족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시고, 아버지 이시고, 형이고 동생이고, 누님이고 누이 동생입니다.

Utunbu 유분투. 아프리카 격언입니다. 유툼부. **I am because we are.** 우리가 있어 내가 있습니다. 혼자 살아 갈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신앙 공동체, 신앙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 있기에, 교회가 있어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제가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가 있음으로 내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족이 있음으로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 의지하고 동역하는 사랑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행하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로서, 믿음 안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의 신앙 가족 생활을 건강하게 정진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